

## 법 어

오늘은 군포교에 열성을 다한 자광스님의 공덕을 토대로 군종교구의 본사주지를 새롭게 모시는 날입니다. 뜻 깊은 오늘도 같은 민족임에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포교는 이들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심어 건강한 청년으로 안내하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후에는 사회에 나아가 자긍심을 갖는 불자로 생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대는 포교의 교두보라고 어느 종교든 공공연하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이 지난45년 동안 매진해온 군포교는 군대라는 본연의 분야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현대식 법회의 도입과 의식의 정비는 불교계가 오늘과 같은 법회와 의식을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병뿐 아니라 군인 가족과 인근 주민에 대한 교화활동을 통해 포교 지평을 크게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종단과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이 지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군종교구가 출범하면서 군포교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진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일면스님을 모시고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한 이후, 제2대 본사주지로 자광스님께서 지난 4년 동안 군포교 업무를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더우기 임기내에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중창하겠다는 원력으로 낙성을 원만성취한 헌신은 군포교 중흥의 초석과 다름이 없습니다. 호국연무사는 개원 이후 일년여 동안 실로 엄청난 수계불자로 배출하는 포교의 전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특히 군종교구는 새로운 청년불자는 물론 대학생 불자를 확보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비추어 제3대 군종교구 본사주지로 취임하시는 정우스님께 바라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포교를 주도하신 선구자로서 그간의 성취는 가히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종단과 불자를 위했던 경험과 연륜은 이제 종단 최대의 포교 조직인 군종교구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리라 종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군포교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승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더없이 뜻 깊은 날이라 할 것이며, 군포교의 중요성은 그 포교성과가 단순히 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포교, 대학생 포교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승 여러분들은 자신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불교 내 모든 곳에 연기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간의 진력에도 깊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처럼 막중한 사명을 실천하여 군포교는 물론 우리 불교계 전반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근년의 모범을 보여주신 자광스님과 앞으로 큰 성취를 이루실 정우스님께 거듭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공덕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7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